

용안생태공원으로 오세요

관광공사·관광기관협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 선정
관광객 밀집없이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단풍명소' 호평



익산 용안생태습지공원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회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공원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회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유명 단풍명소는 제외하고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소규모·가족단위 위주 테마 관광지, 야외 관광지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용안생태습지공원은 관광객 밀집 없이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 명소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원은 나무데크가 설치돼 있으며 가을 역사와 코스모스, 나비(바늘(가우라)꽃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용안생태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느끼며 힐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26일~11월 6일 현장접수

군산시는 중소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현장접수 시 공통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는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이며, 지난 9월 24일부터 '신속지급'으로 전국에서 210만명이 수령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유재구 의장, '코로나 극복' 기업인과의 간담회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지난 21일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에게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기업으로 사한 해결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와 기업인 간 소통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애로사항과 함께 환경관련 분야 인구정책과

관련해 많은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익산시의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지나친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많은 애로사항과 환경규제 제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인구문제와 관련해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재구 의장은 "익산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유해물질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제도방안 마련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 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관철, 정수영)는 22일 PLUS 홈마트(대표 강철)를 착한가게 6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대야면 'PLUS 홈마트' 착한가게 동참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벌이던 가게가 착한가게로 등록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 대야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관철, 정수영)가 22일 PLUS 홈마트(대표 강철)를 착한가게 6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에 동참한 PLUS 홈마트는 지난 2014년 8월 영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강철 대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의 방법을 찾던 중, 착한가게 가

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관철 대야면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위해 착한가게에 동참해 준 PLUS 홈마트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기부문화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한가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가공용 원료 농산물 가공성 실증시험 추진

군산시가 시장확대와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가공용 원료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적응배 및 가공성 실증시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맥주보리용 품종 광맥, 흑호, 옛기름을 보리 품종 등 헤미를 주요품종으로 맥아와 옛기름을 생산하는 공장을 안정화해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하지만 향후 시장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생산하기 위해 품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손잡고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수제맥주 가공용 맥주보리 5품종, 식혜음료 가공용 결보리 5품종, 홉 3개 품종을 선정,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 가공성 시험에 들어간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젠더의식강화 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젠더의식 강화를 위한 특강을 최근 도성희 익산성폭력상담소장을 초청해 학생지원관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데이터 폭력 등 여러 유형의 법적 사례를 통해 올바른 폭력 예방법과 대처, 젠더의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2학년 여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데이터 폭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며, "기회가 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간호학과) 교수는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올바른 건전한 젠더 감수성 정립과 남성·여성 양성 이 평등한 대학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